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올림픽
Beijing 2008 D-112

한국 목표 금 8개 종합 9위

60억 지구촌의 잔치인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이 오는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베이징올림픽 국제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돼 24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205개국, 1만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올림픽으로 치러질 이번 대회는 '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다.

한국은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지난 제28회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톱 10'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금메달 8개를 획득해 10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전통적 강세 종목인 태권도, 수영, 역도, 유도 등에서 금 8개, 은 7개, 동메달 10개 등을 따내 종합 9위를 목표로 하고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종목별로는 먼저 전통 강세 종목인 양궁에서 금메달 4개 중 3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궁과 함께 메달밭인 태권도에서는 여자 67kg급과 57kg급에서 금메달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수영에서는 박태환(19·단국대)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빛 역영을 기대하고 있으며 200m에서도 동메달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역도는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고양시청)이 75kg이상급에서 무난히 금메달을 들어올릴 전망이고 유도는 이원희의 종목인 남자 73kg급에서 금빛 메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국가별 순위로는 최강국 미국이 금 47, 은 24, 동 27개를 따내 종합 1위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최국 중국이 금 38, 은 25, 동 26개로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아테네올림픽에 비해 금메달 수는 6개 늘어나지만 전체 메달수는 63개에서 89개로 대폭 확대돼 명실공히 이번 올림픽 개최를 전환점으로 스포츠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러시아(금 32, 은 31, 동 25)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테네올림픽에서 부진했던 독일이 금메달 18개 이상을 따내 호주와 치열한 4위 다툼을 펼칠 전망이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 16, 은 9, 동 12개를 따내 일약 종합 5위로 도약했던 일본은 베이징에서 금 5, 은 7, 동메달 19개에 머물러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영국은 경기력이 향상돼 종합 5~6위를 내다보고 있으며 아테네올림픽 주최국 그리스는 1개의 금메달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역대 올림픽 성적

회	연도	개최지	금	은	동	순위	참가국수
11	1936	베를린	1	-	1	12	49
14	1948	런던	-	-	2	11	59
15	1952	헬싱키	-	-	2	12	69
16	1956	멜버른	-	1	1	11	67
18	1964	도쿄	-	2	1	11	93
19	1968	멕시코시티	-	1	1	11	112
20	1972	뮌헨	-	-	1	12	121
21	1976	몬트리올	1	1	4	11	92
23	1984	로스앤젤레스	6	6	7	10	140
24	1988	서울	12	10	11	4	159
25	1992	바르셀로나	12	5	12	7	169
26	1996	애틀랜타	7	15	5	10	197
27	2000	시드니	8	10	10	12	199
28	2004	아테네	9	12	9	9	202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일본 국적으로 출전



베이징 향한 질주는 계속된다

■ 광주·전남 출신 선수는?

김대은·이용대 등 (체조) (배드민턴) 메달권 진입 가능

제29회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낼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큰 기대주는 배드민턴의 화순실업고등학교 출신 이용대(삼성전기), 체조의 영광 출신 김대은(전남도청)과 김승일(전남



김대은

도청), 태권도 윤희성(용인대·영광출신), 김주영(조선대·해남 출신)이 베이징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스타들로 꼽힌다.

또 육상에서 조선대 출신 박태경이 110m 허들, 김덕현(광주시청)이 세단뛰기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광주 전남여고를 졸업한 김찬미(19·기업은행)는 여자 사격에서 금 총성을 울릴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김찬미의 전남여고 선배인 이보나(우리은행)도 사격 더블트랩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용대

이용대를 제외하고 아직 국가대표 선발전을 진행 중이지만 이들의 대표 승선은 때때로 당상이다.

특히 박태경과 김덕현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권에서도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들이 과연 세계무대에서 한국 육상의 한을 풀어줄 것인지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덕현은 최근 기록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만 성공한다면 육상 종목 사상 첫 메달이 꿈만은 아니다.

체조 김대은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인 종합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경험자로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의 한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대는 초·중·고 시절부터 '제2의 박주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 종목인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에서 적어도 1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사격계가 발굴한 보물로 여겨지는 김찬미는 지난해 4개대회 연속 우승을 일구며 차세대 기대주로 각광받아 와 여자 공기소총에서 금 총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시범종목이긴 하지만 우수의 장용호는 지난 2005년 제8회 세계우수선수권대회 태극권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통할 실력을 갖춘데다 그동안 노련미가 더해져 메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현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